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구성 및  
사업계획 발표에 관한 기자회견

일시 : 1996년 5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 여성평화의집 회의실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 2 7 3 - 9 5 3 5 )

< 기자회견 순서 >

##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구성 및 사업계획 발표에 관한 기자회견

□ 사 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사무국장

□ 순 서 :

개 회 -

참석자 소개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이하 여연가특위) 구성에 관한 취지문 :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상임대표

여연가특위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제정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신혜수 회장

이상희할머니 사건에 대한 성명서 채택  
한국노인의전화 서혜경 상임이사

질의응답

폐 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취지문 >

매년 5월을 가정의달로 선정해 가정이 사회의 기본 공동체임을 강조해오고 있지만 최근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해온 사위를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 사건은 가정폭력의 문제가 가족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는 신체적인 학대가 죽음을 불어올 정도로 심각하고(울산 정순호 사건), 지속적인 학대에 못이긴 피해 여성이(이순심, 김명희, 전경진 사건) 결국 궁지에 몰려 구타하는 남편을 살해한다든지 그 가족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양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은 개인 가정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어, 피해자들은 인권의 시각지대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은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폭력은 아동폭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구타남편의 53.1%가 어머니가 구타당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구타습관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내 폭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집안문제라는 이유로 방관하는 사회의 무관심과 폭력행위를 신고해도 가정 내 부부싸움 정도로 여기고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문제가 살인 사건을 부축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폭력이 당연시되고 가부장제 가치관이 온존되면서 사회적인 약자층인 여성, 아동,노인은 가정에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단체연합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치료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을 위해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설득작업을 선행할 것입니다.

## < 여연 가정폭력방지법특위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

### 1. 구성

#### (1) 단체 :

가톨릭여성의 쉼자리  
경남여성회  
한국노인의전화 *승애사*  
대구여성회  
제주여민회  
아동학대예방협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10개 단체)

#### (2) 법률시안담당 전문가 :

이종걸 변호사, 이찬진변호사

#### (3) 전문위원 :

각계 각층으로 구성중

### 2. 위원장 : 한국여성의전화 신혜수 회장

### 3. 사업목표

- (1)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제정운동을 전개하여 여성, 아동, 노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한다.
- (2)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법, 경찰 등)와 사회관행상의 문제점을 공청회, 토론회, 청원활동, 홍보물 제작, 결의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모아낸다.
- (3)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이며 인권문제임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한다.



#### 4. 사업내용

##### (1) 「가정폭력방지법」시안 마련 및 입법 청원

- 법률시안 마련(이종걸, 이찬진 변호사) : 5월
- 초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 및 공청회 : 6월말
- 가정폭력방지법 법률안 작성 : 7월초
-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 7월 중순
- 정당 초청 공개토론회 : 8월말
- 의원입법 청원 : 9월

- ##### (2)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공개질의서 작성, 송부
- 각 정당 대표
  - 정부 각 부처(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교육부 등)

야3당  
내2비  
대책 시기장르  
중도

##### (3) 홍보, 출판사업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은 소책자 및 전단 제작

##### (4)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구성

- 각각의 자문단체 필요성. 각계각층의 지원 필요.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여성단체를 포함해 각계각층이 광범위하게 연대하는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한다.
- 범국민운동본부는 각계각층 대표자 서명, 가두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시민결의대회 등 가정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사회적 여론 확산에 힘쓰는 한편 법 제정이 올바른 내용으로 될 수 있도록 대국회 교섭 및 압력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 법이 제정된 후에도 대국민 홍보 및 대국민 캠페인 및 관련 공무원 교육 등을 촉구해 나간다.

## 이상희 할머니 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지난 어버이날 각 언론사를 통해 알려진 한 모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딸의 고통을 보다 못해 범행을 저지른 어머니와 자신 때문에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해온 칠순 노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했던 딸의 모습은 어버이날의에 대표적인 미담거리가 될 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희 할머니 사건을 미담 정도로 볼수 없다.

이 사건은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미연에 방지 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정미숙씨와 이상희 할머니는 피해자 오원종의 폭언과 구타에 수년간 시달려왔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 보름간은 매일같이 오원종의 횡포에 시달려 왔다. 이상희 할머니와 이웃사람들은 오원종의 폭력에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아예 출동조차 하지 않거나 오원종을 10분, 1시간만에 풀어주어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이다.

만일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격리조치만이라도 확실하게 했더라면 이러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직후 정미숙씨의 이웃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출동했었다고 거짓 증언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제와서는 그런 내용의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우리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 같은 경찰의 태도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을 방조하는 태도라 볼수 밖에 없다. 이같은 경찰의 태도는 가정폭력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모순된 현실을 낳게 하는 것이다.

현재 가정폭력에 대해 무대책이 대책인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랫동안 지속된 폭력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심신이 파괴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된 이상희 할머니의 정상을 참작하여 조속히 석방해 주기 바란다. 이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한 우리 사회가 져야할 책임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검찰 우리사회의 인식과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들이 모두 이번 이상희 할머니 사건과 같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들이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항의 한다.

사건 관할 파출소인 소래 파출소와 은행동 파출소장을 문책하라

둘째 가정폭력의 실질적 피해자 이상희 할머니를 조속히 석방을 하라

셋째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위해 경찰에 대한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

넷째 지금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어린이, 여성,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의 즉각 제정하고 시행하라

1996. 5. 15.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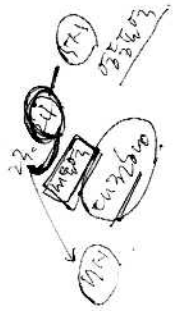


# 살인을 부른 가정폭력 방치한 경찰을 규탄한다!

- 이상희 할머니 석방을 위한 긴급 공청회 -

사회 : 신혜수

1. 인사말
2.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CASE 분석  
(김혜선 - 한국여성의전화 상담국장)
3.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처리과정  
(이종걸 - 변호사) ← 가정폭력방지법  
→ 여성폭력방지법 2012년 200여.
4. 가정폭력 피해자 정미숙 씨 증언



\*\* 공청회후 종로 2가까지 거리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 : 1996. 5. 16(목). 오후 2시

장소 : 노동사목회관 (종로성당) 3층 교육관

주최 : 한국여성의전화

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